

환절기의 육성단계별 돼지관리 포인트



이 재 춘
(한별 피그 클리닉)

봄 철 환절기에는 (3~4월) 겨우내 밀폐된 돈사 내에서 축적되어온 각종 병원균들의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또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돈군의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호흡기 질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1. 환경, 사양관리

환절기 관리의 포인트는 돈사내부 환경을 얼마나 쾌적하게 유지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

1) 온도관리

가. 봄철이 되면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게 된다.

나. 10도 이상의 일교차는 돼지의 항병력을 저하시켜 질병 감염을 용이하게 한다.

다. 따라서 각 성장 단계별 적정온도를 기준으로 최고 최저온도의 차가 10도 이내의 범위로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표 1)

〈온도관리의 실천〉

- 각 돈사별로 최고 최저온

도계를 필히 비치해 둔다.

- 1일 3회이상 온도계의 눈금을 확인한다.
- 온도 확인시 돼지들의 상태를 함께 파악한다.
- 분만사와 이유자돈사는 일교차 5도 내외, 기타 돈사는 일교차 10도 내외를 유지.
- 환기량 조절.
- 섯바람에 의한 온도 사각지대 최소화(출입문, 윈치커튼 등의 틈새 밀봉, 섯바람 많은 출입구 부근의 돈방 칸막이는 밀폐시킨다).

2) 습도관리

가. 환절기 습도는 6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나. 습도가 60% 이하일때 호흡기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다. 돈사내 습도는 60%~80% 사이로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준다.

(표 1) 돼지 사육단계별 적정 사육환경

구 분	적정 환경온도 범위	환경요인
포유 자돈	생후 3일까지 29~32도, 1주후 부터 24~28도 유지	습도: 60~80% NH ₃ : 15ppm 이하
이유 자돈	이유시 29도, 이후 매주 3도씩 떨어짐. (평균 20~25도)	
육성, 비육돈	13~24도 범위내에서 일교차는 10도 내외로 유지	
임신돈, 포유돈	14~24도	

〈습도관리의 실천〉

- 각 돈사별로 습도계를 필히 설치하고 온도계와 함께 1일 3회 이상 점검한다.
 - 소독횟수를 늘려준다(최소 주 3회이상, 적정 횟수는 1일 1회, 질병발생시 1일 1회 이상).
 - 돈사내 통로에 물을 뿌려준다(특히 야간에).
- 이때 소독약을 희석한 물을 뿌려주면 좋다.
- 안개 분무기를 설치 가동 한다.
 - 환기량을 조절 한다.

3) 환기

가. 겨울철보다 주간 온도가 상승하므로 돈사내 가스 발생량 증가(환기의 필요성 증가).

나. 습도저하로 돈사내 먼지 발생량 증가.

다. 가스와 먼지의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및 호흡기 질병 등으로 증체율 저하 및 폐사위험이 높아진다.

〈환기관리의 실천〉

- 각 돈사별로 암모니아 가스 측정. (최대 15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주, 야간 가스농도를 점검하여 주간과 야간의 환기량을 결정한다(주간, 야간의 환기량은 차이가 있음을 잊지 말고 매일 하루도 빠짐 없이 세밀하게 관리 해 주어야 한다).
- 온도관리 및 습도관리와 항상 병행하여 실시 한다.

4) 기타 사양관리

가. 빈 돈방의 수세, 소독후 돼지 입식을 철저히 준수한다.

- 오염된 돈사 및 돈방에 어린돼지가 입식되면 질병의 피해가 증가된다.

- 특히 환절기에 돈방소독이 안될 경우 호흡기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표 2) 단계별 적정 사육밀도

단 계	두당 최소소요 면적(m ²) (전면 슬랏인 경우)	돈방당 수용두수
분만틀(포유돈+자돈)	3.3	-
이 유 자 돈	0.3	20두 이하
육 성 돈	0.5	20두 이하
비 육 돈	0.8	20두 이하
임 신 돈	1.4	-
웅 돈	7.0	-



나. 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한다(표 2).

- 밀사는 돈사내 병원균의 수를 증가 시킨다.
 - 위축돈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 증체율 저하 및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 다. 물탱크 청소 및 음수배관에 대한 소독 실시 (음수 소독).

라. 사료통 청소 및 사료 급여 프로그램 점검 (각 사료회사별 성장단계별 급여기준 준수).

2. 질병, 방역, 위생관리

1) 대표적 호흡기 질병

가. 위축성 비염(진행성 위축성 비염이 문제됨)

- 비갑개 변형으로 인한 안면골 변형돈들은 P.multocida의 독소에 의한 것임

- 독소이드 백신의 접종 필요성이 증가한다.

- 포유자돈에 대한 가나비강 분무를 3회 이상 실시한다.

- 포유돈에 쉘파제 투약이 필요.(수직감염 최

소화)

나. 파스튜렐라 페럼

다. 흉막페럼

- 육성돈에서 비육말기 사이에서 주로 발생
- 이유후 자돈에 2차접종까지 필히 실시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라. 마이코플라즈마 페럼.

마. 기타 바이러스성 질병(PRRS, 오제스키등)

2) 백신 프로그램

- 모돈과 웅돈에게 접종하는 계절 백신의 접종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다.
- 접종하는 백신 프로그램은 전문가와 상의하

<표3> 봄철 웅돈의 백신접종 계획표(예)

백신	접종시기 (목요일 접종)
돈콜레라	4월 첫째주
일본뇌염 1차	4월 둘째주
돈 단 독	4월 세째주
파 보	4월 네째주
일본뇌염 2차	1차접종 3~4주 후

*후보돈, 모돈의 일본뇌염 백신 접종도 이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여 결정한다.

- 결정된 백신 프로그램은 자주 바꾸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시한다.
- 백신접종의 방법에 따라서도 면역 형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한다.

3) 구충

- 내외부 구충을 동시에 실시한다.
- 모돈 및 웅돈의 내부 구충을 계절별로 실시할 때는 구충을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한다.

4) 항생제 클리닝

- 3월이면 기후의 변화와 더불어 돈사내 병원균의 수도 높아지므로 항생제 투약이 필요함.

- 가급적 문제시되는 호흡기 질병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약제 감수성 검사를 해준다.

- 항생제 클리닝 전에 양돈 전문 수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상담을 통해 약제 선정과 투약방법, 투약기간 등을 사전에 결정해 놓는다.)

- 번식돈 전체와 육성돈(출하 1개월 전의 비육돈은 제외)에 약제 투약.

- 음수투약 시설을 설치한다. (질병발생시 사료섭취량이 저하되므로 사료첨가 보다는 음수투약이 효과가 탁월함)

5) 소독

- 1일 1회 분무소독을 일상 관리로 정착시킨다.
- 소독약은 2~3종류의 다른 제제를 선정하여 교대로 사용한다.

- 소독약은 희석 배율이 중요하다. 사용중인 소독약의 희석 배율을 다시 확인하고 준수한다.

- 삼출성 표피염의 발생율이 높으므로 분만사와 자돈사의 소독 및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6) 차단방역

- 외부 출입 차량(출하차량, 사료차 등) 및 인원에 대한 소독 철저.
- 출하대 부근 생석회 도포
- 외부 구입돈 격리, 항생제 투약 및 백신접종

3. 끝내면서

봄철 환절기 관리는 환경관리와 질병관리에 주안점을 둔다. 특히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3월이면 TGE 나 PED의 발생 위험 또한 높은 시기이다. 따라서 특별히 농장의 위생상태를 강화해야 한다. **養豚**